

“홍삼포크 로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한 단계 끌어 올리고 싶다”



◀ 젊은 패기로 뚝뚝뚝 증평지부. 왼쪽부터 증평지부 이재면 이사, 김형문 이사, 김진용 사무국장, 박경환 이사, 연규원 지부장, 주미숙 간사, 박광조 부지부장, 연종석 이사, 한진만 이사, 정진학 부지부장.

취재 : 이소영

증평지부는 1979년 2월 17일부터 괴산지부로 설립하여 운영해 오다, 2004년 3월 25일 괴산군에 속해 있던 증평출장소가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증평군으로 승격됨과 함께 증평지부로 명칭을 바꾸고 괴산지부(신규)와 분리되었다. 친목단체로 시작된 증평지부는 증평, 괴산, 진천, 청원 4개군의 양돈 농가가 회원으로 구성되어 운영되어 오다가 증평지부와 괴산지부를 나누어 운영하게 되었다. 지금의 증평지부가 있기까지 많은 시련과 노력이 있었으리라 짐작이 된다. 약 26년여의 전통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충청북도 증평지부를 방문했다.

“증평 삼겹살 축제”는 이제 지역축제로 자리매김

올해 10월이면 3회째를 맞이하게 될 “증평

삼겹살 축제”는 증평지부 회원들의 노력으로 지역축제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런 증평지부 회원들의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던 결정적인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무엇보다



다 증평군의 아낌없는 지원과 시기적절한 사업아이템 제시 등이 있었기에 가능하다"는 연규원 지부장은 "유명호 군수는 증평군으로 승격되기 이전에 여러 가지 행정 및 보조금 지원 등이 열악했던 것을 고려해, 보다 양돈산업이 발전적인 형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함께 증평 양돈을 위해 곁에서 큰 힘을 실어 주고 있다"고 말했다.



● 2004년 10월 증평지부가 개최한 소비자와 함께하는 제2회 증평 삼겹살 축제 한마당.

거리 제공으로 참석자들이 즐겁게 행사에 참여하면서 돼지고기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하나의 큰 지역축제로 자리잡았다.

■ 홍삼포크와 함께하는 새로운 도약

지난해 10월에 개최된 “소비자와 함께하는 제2회 증평 삼겹살 축제” 역시 증평 삼겹살의 다양한 기능성 요리와 맛을 보존하고 계승발전 시키기 위하여 증평군에서 행사지원금과 더불어 홍보에도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었다고 한다. 보강천 체육공원에서 열린 이 축제에는 증평 돼지고기 요리 경연대회 및 요리 10선 전시회, 홍삼돼지고기 무료시식회, 돼지 바베큐 무료시식회 등으로 많은 소비자들에게 증평 삼겹살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예쁜 돼지 선발대회, 돼지오줌보 축구대회, 난타공연, 돼지 씨름대회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와 이벤트행사로 알찬 구성과 볼

증평은 삼겹살뿐만 아니라 인삼으로도 유명한 지역임에 착안하여 유명호 증평군수는 “홍삼포크” 브랜드사업을 증평지부에 추천하였다. 증평지부는 “홍삼포크” 브랜드 사업에 운영위원회를 필두로 한 모든 회원들이 종돈통일, 사료통일, 공동출하 등은 물론이고 브랜드 사업 성공을 위한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증평 홍삼 포크”는 증평지역의 인삼을 원료로 홍삼액을 생산하고 남은 홍삼박을 OEM 생산방식으로 생균제와 혼합하여 돼지에게 급여하여 생산하게 된다. 돼지고기의 안정성과



▲ 2004년 3월 증평지부 이·취임식에서 연구원지부장이 인사 말을 하고 있다.

품질유지를 통해 기능성 돈육브랜드로써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충북대학교에 연구개발을 맡겨 구체적인 효능과 화학적 특성 등을 조사·연구중이다.

앞으로 충북대학교와 추진하게 될 연구개발 목표는 홍삼부산물을 돼지에게 급여하였을 경우 돈육 생산성과 도체 특성 및 육질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내고 돼지사양 성적 변화와 홍삼부산물의 적정첨가 수준을 구명하는데 있다.

“증평지부는 현재 성공적인 브랜드 사업을 위한 기본적인 밑바탕은 거의 준비된 상태이고, 육질 면에 있어서는 먹어보면 소비자가 다 알 것”이라며 “홍삼포크의 성공은 증평양돈인이 앞으로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증평지부 회원들. 그들의 기대와 자신감에 찬 눈빛은 이미 반 이상의 성공을 확신한 듯 보였다.

다양한 정보제공과 회원단합 유도는 당연 지부가 할 몫

증평지부는 매달 17일 월례회의를 개최하며 세미나도 함께 연계하여 회원들이 보다 효율



▲ 왼쪽부터 김진용 사무국장, 연구원 지부장, 주미숙 간사

적으로 정보 및 기술을 습득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제까지는 주로 사료회사나 동물약품회사 등에서 제공하는 세미나를 마련하였으나, 보다 수준 높은 세미나를 위해 전문강사를 초빙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고 연구원 지부장은 밝혔다. 매달 열리는 월례회의와 세미나에 참석하는 회원들의 참석률은 60~70% 정도. 회원들이 바쁜 가운데서도 지부행사에 꼭 참석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연구원 지부장은 야유회 및 단합대회를 통한 회원간의 단합을 도모하고 있다. 증평지부로 명칭을 바꿈과 동시에 지부장을 역임한 연구원 지부장은 지부장이 된 이후 지속적으로 야유회와 단합대회 등 가능한 한 회원들의 만남의 장을 많이 마련하려 노력해 왔다. 이제면 이사는 “야유회나 단합대회는 단순히 만나서 놀고 먹고하는 것 보다 더 큰 의미를 갖는다. 야유회나 단합대회 등을 통해 회원들은 그간의 오해나 고민, 스트레스를 깨끗이 날리고 일상으로 돌아 올 수 있게 해준다. 그러면 회원 각각의 사기 진작 뿐만 아니라 회원들 사이의 끈끈한 단합심도 함께 생기게

된다”고 전한다.

앞으로도 더욱 알찬 아우회 및 단합 대회 등을 꾸준히 갖을 계획이라는 연규원 지부장과 증평지부 집행부는 “회원들이 잘 참석해 주는 것만으로도 지부를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된다”며 회원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했다.

■ 위기극복의 원천은 회원 단합

과거 괴산지부로 운영되던 시기에는 지부회원수도 적당히 많아 지부를 운영하는 데 별달리 어려움이 없었으나, 증평지부로 명칭을 바꾸고 신규로 괴산지부가 설립되면서 회원이 갑자기 반으로 나뉘면서 한때 위기를 맞이하기도 했었다고 한다. 현재 40명이 못되는 비교적 적은 수의 회원이지만, 뚝뚝 뭉친 힘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단합력과 결속력을 자랑한다. “선배 양돈인들로부터 이어받은 틀이 잡힌 지부 목표와 정신을 바탕으로 갈등을 극복하고자 노력하였기에 지금의 증평지부가 있다”며 지난 1년여를 회상하는 연규원 지부장의 표정에는 그동안의 노고가 그대로 묻어났다.

증평의 양돈산업은 무려 13년여 동안 괴산군에 소속된 증평출장소에 위치한 영향으로 여러가지 면에서 위축되어 오던 것이 사실이다. 증평출장소에서 증평군으로 승격되면서 비로소 증평지역의 양돈업은 제기능을 다하며 안정된 형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되었다.

“연규원 지부장을 비롯한 운영위원들과 김진용 사무국장이 발로 뛰며 노력 많이 한 덕가”라고 박경환 이사는 말한다.



▲ 왼쪽부터 이제면 이사, 김형문 이사, 한진만 이사, 박경환 이사, 정진학 부지부장, 연규원 지부장, 김진용 사무국장, 박광근 부지부장, 연종석 이사

■ 젊은 패기로 새롭게 강하게

“타도시도 마찬가지로겠지만 증평지역 역시 도시화로 인해 양돈 두수와 사육농가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라는 정진학 부지부장은 “그러나 현재 남아있는 양돈인들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각오로 힘을 모은다면 안될 것이 없다”고 말한다. 무엇보다 증평지부의 임원진들은 평균연령이 젊다. 젊은 패기와 양돈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회원 각자의 제 임무에 충실히 임해 준다면 증평지부의 미래는 환할 것으로 보인다. 지부의 자랑거리로 회원 단합력과 적극적인 추진력을 꼽는 증평지부 회원들은 또 다시 위기가 온다고 해도 견뎌낼 준비가 되어 있다며 주먹을 불끈 쥐어 보였다.

연규원 지부장은 “전국의 양돈협회 회원들과 각 지부들이 하나로 뭉쳐 국내 양돈산업에 산적한 양돈업 과제를 하나 하나를 잘 풀어 갔으며 좋겠다”면서 “양돈산업과 자조금법은 양돈협회와 양돈인이 주인임을 잊지 말자”고 전국의 양돈인에게 파이팅을 전했다. **양돈**